

■ 2026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제작지원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제작지원단)
- 회의일시
 - (1차) 2026년 4월 7일(화) 13:30~16:00 / 온라인
 - (2차) 2026년 4월 16(목) 15:00~18:00 / 아르코미술관 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성원, 김정연, 김찬동, 전민경, 최창희

본 공모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문화재단과 10개 광역시·도립미술관이 2025년 사업 결과로 추천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과 경력 발전을 지원할 제작지원단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총 4개 단체가 응모하였으며, 심사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평가 기준은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의 부합성’ (30%),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타당성’ (30%), ‘사업수행 역량’ (40%) 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응모 단체들은 전반적으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작가 지원 및 프로모션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획 역량을 보여주었다. 특히 작가의 작업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전시로 확장할 수 있는 큐레이션 및 비평 능력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갤러리, 미술관, 비엔날레, 컬렉터 및 기업 후원,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유통 및 확장 가능성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한계는, 프로모션 방식이 다소 정형화된 절차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과 세대, 작업 성격이 상이한 작가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의 핵심은 다양한 문제의식을 지닌 작가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이에 따라 작가 개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을 설계하는 역량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작가와 제작지원단 간의 관계 설정에 주목하였다. 일부 단체는 작가를 단순히 프로모션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작가의 경력 형성과 예술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서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본 사업은 단기적 성과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작가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제작지원단은 작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기획 및 네트워크 역량은 확보되어 있으나, 작가별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인력 구조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이 일부 확인되었다. 작가 개별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필요 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유연하게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응모 단체들은 전시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본 사업이 요구하는 작가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와 장기적 경력 설계 역량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선정 단체는 기존의 프로모션 중심 접근을 넘어, 작가의 창작 환경과 성장 단계에 기반한 전략적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지역 작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중앙 연계형 사업으로 선정된 제작지원단은 단순한 지원 수행 기관을 넘어 작가의 성장과 경력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작지원단이 작가 중심의 지원 구조 강화, 맞춤형 운영 체계 구축,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 기반의 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지역 예술 생태계의 질적 도약을 이뤄낼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수행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6년 지역예술도약지원 심의위원회 일동